

海技教育大學 학생의 學校風土意識과 成敗歸因 및 學校生活의 관계에 관한 實證的 研究

채양범* · 김성국** · 김성철***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Climate, Success-Fail
Attribution and Campus Life in Maritime College Students

Yang-Bum Chae · Seong-Kook Kim** · Seong-Cheol Kim****

<목 차>	
Abstract	3.4 學校風土意識과 학업성적, 宿營生活態 도에 관한 실증분석
1. 서 론	3.5 成敗歸因과 학업성적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2. 연구방법 및 범위	3.6 成敗歸因과 宿營生活態度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3. 실증분석	4. 결 론
3.1 학년별 學校風土意識에 관한 실증분석	참고문헌
3.2 학년별 成敗歸因에 관한 실증분석	
3.3 宿營生活態도와 학업성적의 실증분석	

Abstract

It is one of the important study for improving education quality to investigate School climate, Campus Lif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of success / failure attribution in academic achievement and its internal-external attribution of Maritime college studen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college climate and attribution of success and failure about college life and cadet's academic performance.

The subjects were 490 cadets of freshman, sophomore and junior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data was analysed by Pearson's correlation, one-way and simple factorial ANOVA, χ^2 , and t-test by using SPSSWIN Ver. 7.5 programme.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교수, 승선생활관 생활지도교수

** 양산전문대학 강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운경영학과 박사과정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운경영학과 석사과정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Social relationship orientation was higher than the others on the perception of college climate,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or and collegian was lower.
2. The most collegian recognized on the attribution of failure about the college lif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or and collegian. But most collegian recognized on the attribution of success about collegian's relationship.
3. The perception of college climate and attribution of success / failure was not influenced on th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academic adaptability.

1. 서 론

세계 각 국의 海技教育은 교육과정 운영체제, 교육비 지원제도, 교육의 자율성 등에 따라 다양하며 그 나라의 전통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 변천 과정도 다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오늘날 海技教育은 선박의 기술발달, 산업구조의 변천, 승무원의 배승구조 및 국제 해기인력 공급 공급구조 등의 海運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의 질적 변화에 따른 젊은 세대의 價値觀과 意識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본적인 海技教育과 병행하여 海技 관련 전문분야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변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대형 해난사고의 상당부분이 인적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國際海事機構(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海技教育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1978년 船員의 訓練·資格證明 및 當直勤務의 基準에 관한 國際協約(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이하 STCW 협약)을 더욱 강화하여 기본적인 海技教育의 내실을 강조하고 있다.¹⁾ 또한 국가간의 항구를 항행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한 海技教育은 국제협약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모델화되어 있고, 교육성과(졸업생)의 비교가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특성이 있는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海技教育은 해상 固有의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과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능, 확고한 직업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직업인성과 능력은 자기 계발의식, 책임감, 克己心, 명령 복종심 등과 같은 정신적인 특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해기사 특유의 퍼스널리티로 정규교과 이외에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일반 대학의 교육과는 달리 승선생활관 교육과 승선실습 교육과정은 海技教育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認識되어왔다.²⁾

우리나라 해기교육 대학의 학생들은 해기교육

1) IMO에서는 1978년 STCW 협약의 전면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1995년 6월의 STCW 총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개정 STCW 협약은 1997년 2월 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1995년 7월에 개정된 STCW 협약에서는 해기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 훈련의 평가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IM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in 1995*,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996.의 Regulation 1/8(Quality standards)를 참조.

2) 해기교육의 秀越性확보를 위한 기존의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效率的인 實習教育 改善方案 (南青都, 海洋安全學會誌 제1권 2호, 1995)”, “해사대학생들의 효율적인 승선생활훈련 방안에 관한 연구 (신한원·문경만·김윤식·이영호·채양범·박호철·설동일·국승기, 韓國航海學會誌 제15권 4호, 1991)”, “21世紀를 向한 海技高等教育 (李相鍊, 韓國航海學會誌 제17권 1호, 1993)”, “高度成長社會에 있어서의 海技高等教育方案에 관한 研究 (李相鍊, 韓國海洋大學校 海事業業研究所 論文集 制2輯, 1992)”, “海運職專門人力의 精神教育開發에 관한 研究 (李相鍊·李永澤·卞在鉉·黃乙文·崔宗洙·李太雨·張赫均·W. R. Rosengren, 한국해운학회지 제6호, 1988)”, “韓國海技士의 教育開發에 關한 研究 (鄭世謨·全孝

과정중 국제협약에 의거한 6개월~1년간의 승선실습 교육과 졸업후 근무할 해상의 승선환경에의 적응을 위하여 승선생활관 교육을 통하여 宿營生活³⁾을 하고 있다. 이 宿營生活은 입학전 적응교육과 동시에 시작하여 졸업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재학기간의 대부분⁴⁾을 승선생활관 및 실습선에서 동료들과 宿營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환경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생활의 학업성취, 동료간의 관계 및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선생활관 및 실습선에서의 생활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련한 연구는 “인간의 行動은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인의 特性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相互作用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고 한 K. Lewin의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행동방정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 또 이런 命題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성과에 작용하는 變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특성들이 미치는 영향, 환경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두 특성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를 探究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提示하고 있으며,⁶⁾ 학업성취와 관련된 變因으로 학습자, 학습과제, 교수, 환경 등을 지적하고 있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후반기의 고임금 메리트의 퇴조로 야기된 해기교육의 퇴조와 교육환경의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기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 교육의 질적 향상도모와 재학생들의 자아실현적인 지적 욕구에 부

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해기교육에 병행하여 해기 관련 전문분야 교육과정 신설 — 를 취한 1990년 이후의 海事大學生들의 大學風土意識(school climate)과 학교생활에 대한 成敗歸因(sucess-fail attribution)에 관한 실증 분석과 아울러 학업성적 및 생활태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해기교육의 秀越性を 확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學校生活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1, 2, 3학년(1996학년도 기준)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다.

연구 대상의 학년별 분포는 <표 1>과 같은데 이들은 승선생활을 목적으로 승선생활관 및 실습선에서 4년간의 宿營生活을 하여야 하는 학생들이며, 宿營生活을 하지 않는 일부의 학생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기초적인 자료는 승선생활관, 실습선 및 수업과에서 제공한 과거 1년치(1996학년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표본과 전체중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연구분석대상	163명 (33.2%)	199명 (40.6%)	128명 (26.1%)	490명 (100%)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 重·盧彰州·李相鍊, 韓國航海學會誌 제8권 1호, 1984”, “해기고등교육 개발에 관한 연구(韓國海洋大學 海事學部發展計劃研究委員會, 1991)” 등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해기 직업퍼스널리티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교육의 방법으로 승선생활관 훈련과 승선실습과정중을 제안하고 있다.
- 3) 해기교육 대학의 宿營生活의 논의에 대해서는 “海運職 專門人力의 精神教育開發에 관한 研究(李相鍊·李永澤·卞在鉉·黃乙文·崔宗洙·李太雨·張赫杓·W.R.Rosengren, 한국해운학회지 제6호, 1988)”, “韓國海技士의 教育開發에 관한 研究(鄭世謨·全孝重·盧彰州·李相鍊, 韓國航海學會誌 제8권 1호, 1984)” 등을 참조.
 - 4) 대학재학 중 방학 및 일부 학생의 개인위탁상선실습 기간(평균 6개월 가량)을 제외한 기간을 숙영생활하고 있음.
 - 5) 黃禎奎, 大學環境의 社會心理의 特徵 研究, 高麗大學校 教育問題研究所, 1982.
 - 6) 崔志雲, 大學環境과 精義의 特性, 서울: 叡智閣, 1984.
 - 7) 鄭範模, 교육과학신서 16권 : 學業成就의 要因, 서울: 教育出版社, 1977.

같이 설정 하였다.

- ① 海技教育大學 학생의 學校風土意識과 대학생활에서의 成敗 歸因性向을 밝히고 이의 학년별 차이를 밝힌다.
- ② 海技教育大學 학생의 宿營生活態도와 학업성적의 관계를 밝힌다.
- ③ 海技教育大學 학생의 學校風土意識과 그들의 학업성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를 밝힌다.
- ④ 대학생활에 대한 成敗歸因性向이 학업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힌다.
- ⑤ 海技教育大學 학생의 學校風土意識과 그들의 宿營生活態度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를 밝힌다.

설문의 문항은 海技教育大學의 학생들에 관한 선행연구와 교육학 분야에서 학업성취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 도구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설문은 교육학분야에서 학생의 意識과 학교환경척도를 사용하는데 유용한 개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자기 大學風土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學校風土意識에 관한 설문지는 Stern & Pace가 學校環境尺度에 기초하여 제작된 道具⁸⁾를 근간으로 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學校風土意識에 관한 설문은 신뢰도 계수는 $r=0.73$ 인 實用指向性, 學問指向性, 캠퍼스士氣, 認知指向性, 教授-學生關係, 禮節指向性 및 社交指向性 등 7개 영역으로 구성⁹⁾되어 있으며 설문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歸因性向(locus of control)¹⁰⁾이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중 學業成就面, 教授와의 關係面, 同僚와의 關係面에서 각각 자신이 成功했는지 아니면 失敗했는지를 認識하는 것이며 또한 그 같은 成敗의 원

<표 2> 설문의 영역과 설문내용

영역	설문내용
實用指向性	교수의 강의 준비 및 강의내용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기대행동양식 학생들의 대학 공공 재산의 보호 학생들의 대외적인 행사 참여 교내 상황의 전과 학생들의 총동적 행동 학생들의 히세 및 과시욕
學問指向性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 학생들의 토문 승부욕 학생들의 학업성취욕 교수의 수업내용 점검점 대학의 학문적 우수성 학생들의 難과제 해결 능력 학생들의 교수 신뢰
認知指向性	대학의 학업평가 빈도 학생들의 개인 소견 발표 빈도 학생들의 학문 수행의 지속성 학생들의 시사 토론 빈도 대학의 교육 목적 학생들의 개인의 긍지
캠퍼스士氣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건의 빈도 대학 강의실의 분위기 대학의 학생 주장 및 요구 수용 학생들의 교칙 및 규정 준수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흥미 학생들의 학교 정책 이행 학생들의 자기 표현
教授-學生關係	교수 및 직원의 친절 교수의 학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 교수의 강의 관심 교수의 학생의 개인적 관심 학점 취득의 수월 교수의 학문 영역과 강의 능력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관심
禮節指向性	생활공간의 청결유지 학생들의 언행 정결 및 시간 절약 교수에 대한 존경 학생들의 질서 유지 학생들의 행동 조심 학생들의 복장 단정 학생들간의 예절 준수
社交指向性	학생들의 집단적 행동 학교생활의 협동심 대학의 명량한 분위기 학교생활의 가정적 분위기 학생들의 일체감 개인의 신변 논의 개인의 지명도 수준

8) Pace, C. R. & Stern, G. G., *An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49, 1958. 아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學校風土檢査, 수원: 아주대학교, 1984.

9) 太源植, 大學生의 學校風土意識과 情緒의 特性間의 常關 研究,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10) Rotter, J. B.,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vol. 80, 1966, pp. 1-28.

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는데, 이때 成敗의 원인을 주로 努力(effort) 혹은 能力(ability) 要因이라면 內的歸因性向(internal locus of control), 그 원인을 과제의 難易性(task difficulty) 혹은 運(luck) 要因이라고 하면 外的歸因性向(external locus of control)이라고 하였고, 각 영역별 7문항씩 총 49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각 설문의 응답을 부정이면 0점, 부분긍정이면 1점, 긍정이면 2점으로 하여 계산하였다.¹¹⁾

從屬變因인 學業成績은 1년간의 각 담당교수가 평가한 것을 이용하였다.¹²⁾ 연구대상의 성적평점의 만점은 4.5이며 높을수록 성적은 좋다.

또한 從屬變因인 학생들의 宿營生活態度를 계량화하고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海技教育大學 학생의 공과규정점수를 상점 : 별점을 1 : 2로 상계하여 기본점수 400점에서부터 계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宿營生活態度는 좋다. 분석대상은 제한점으로 인하여 1, 2 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¹³⁾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① 학년간 學校風土意識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② 학년간 學校 생활에 대한 成敗 歸因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③ 학생의 공과규정점수와 학업성적과는

正的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④ 학생의 學校風土意識과 학업성적과는 正的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⑤ 학생의 學校風土意識과 공과규정점수는 正的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⑥ 成功認識 학생이 失敗認識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⑦ 成功認識 학생이 失敗認識 학생보다 공과규정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⑧ 成敗에 대한 內的歸因 학생이 外的歸因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⑨ 成敗에 대한 內的歸因 학생이 外的歸因 학생보다 공과규정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⑩ 학업성적에 있어 成敗認識과 內外的歸因性向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을 것이다.

가설 ⑪ 공과규정점수에 있어 成敗認識과 內外的歸因性向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을 것이다.

또한 學校風土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학습자 변인으로서 대부분 나이 어린 初中等學校 및 一般大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단체 宿營生活와 선박근무라는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海技教育大學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¹⁴⁾

11)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위하여 같은 척도를 사용하였다.

12) 각 교수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성적의 동질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학업성적을 대표할 만한 척도라 판단되며 또한 선행연구와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선택하였다. 방법은 1996학년도 1, 2학기 성적을 산술평균하여 선택하였다.

13) 연구대상인 海技教育大學의 생활태도 평가는 규정에 의하여 평가받고 있으며, 상점 및 별점을 1 : 2로 상계하여 사정하고 있다. 또한 1, 2학년의 경우 4학년 학생조직에 의해 대부분 평가되고 3, 4학년은 교원에 의해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3학년의 경우 장기 상선위탁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생활태도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아울러 각 학년별로 별점의 제한폭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생활태도의 실증연구 부분에서는 1, 2학년의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한국해양대학교 승선생활관규정 제 52조(상점추천 및 별점지적)의 ② 및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학생생활규정 제18조(상점 및 별점의 처리)의 ⑤ 참조. 한국해양대학교승선생활관규정 제2조(교육목표), 1997-1998 한국해양대학교 요람, 1997, p. 272, 279.

14) 최근의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는 귀인성향과 학업성적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지하는 연구결과(安貴德, 歸因性向, 知覺學級風土 및 두 變人의 相互作用이 學業成績에 미치는 影響, 中央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86.; 柳基燮, 選定된 個人 및 環境의 變人과 學業成績과의 關係, 中央大學校 教育問題研究所 논문집(4), 1987.; 吳榮煥, 學習者의 歸因 行動과 學業 成就와의 關係 分析,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8.; 羅炳術, 一時的으로 賦與된 成功 失敗의 經驗이 自我概念 및 特定課題 自我概念과 歸因性向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 初中高等學生을 대상으로 함)과 관계없음을 보고하고 있는 상반된 결과

〈표 3〉 학년별 學校風土 하위영역의 평균 및 표준편차 (df=2)

	실용지향성		학문지향성		인지지향성		캠퍼스사기		교수학생 관 계		예절지향성		사교지향성		전 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학년 N=163	7.0000	1.7882	4.7791	2.3440	3.7730	2.0224	5.3313	1.9150	3.7239	2.0285	6.9571	2.4174	8.6871	2.1731	40.2515	8.3484
2학년 N=199	6.6985	1.8694	5.4422	2.6544	3.8141	2.2021	4.7638	1.8988	3.8392	2.0061	6.7387	2.2433	7.8241	2.6807	39.1206	9.7217
3학년 N=128	6.5703	1.5095	5.1484	2.3813	4.0625	2.0457	4.6328	1.9150	3.1953	1.7255	6.7188	2.0310	7.8906	2.8623	39.1206	10.1547
F	2.3929		3.1922*		0.7786		5.9006**		4.5392*		0.5523		5.7734**		1.7113	
유의도	0.0924		0.0419		0.4596		0.0029		0.0111		0.5760		0.0033		0.1817	
전 체 N=490	6.7653	1.7596	5.1449	2.4953	3.8653	2.1022	4.9184	1.9275	3.6327	1.9586	6.8061	2.2486	8.1286	8.1286	39.2612	9.4211

* p < 0.05 ** p < 0.01

3. 실증분석

3.1 학년별 學校風土意識에 관한 실증분석

學校風土에 대한 意識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①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학년간의 차이를 보인 學校風土영역은 것은 캠퍼스 사기, 사교지향성, 교수-학생 관계 및 학문지향성 등 4개 영역으로 전반적으로 가설 ①을 긍정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意識은 사교지향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절지향성, 실용지향성, 학문지향성, 캠퍼스 사기, 인지지향성, 교수-학생 관계의 순으로 意識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행연구와는 최고와 최저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¹⁵⁾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경우 1학년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고학년이 될수록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1학년의 경우 실용지향성, 인지지향성, 예절지향성 및 사교지향성의 하위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2학년의 경우 학문지향성, 교수-학생과의 관계에서 다른 학년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3학년의 경우 실용지향성, 캠퍼스사기, 교수-학생과의 관계 및 예절지향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차이를 보인 영역에서 Scheffé 검증¹⁶⁾을 이용하여 사후 검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즉, 학문지향성 및 사교지향성에서는 1학년과 2학년이 차이가 있었으며, 캠퍼스 사기에서는 3학년과 1, 2학년이 차이가 있고, 교수-학생 관계에서는 2학년이 1, 3학년과 차이가 있었다.

〈표 4〉 학년별 學校風土意識의 사후 개별 비교 (Scheffé 검증결과) (p=0.05)

	학문지향성			캠퍼스사기			교수학생관계			사교지향성		
	1 학년	2 학년	3 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1학년								*			*	
2학년	*											
3학년				*	*				*			

(李煜基, 大學生的 學校風土意識 및 大學生活에 대한 成·敗歸因과 學業成就와의 關係, 中央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1. : 大學生을 대상으로 함)가 있다.

15) 선행연구에서는 학년간의 차이가 부정되었으며, 대학생의 認識은 사교지향성, 학문지향성, 예절지향성, 인지지향성, 실용지향성, 캠퍼스 사기, 교수-학생 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李煜基, 前掲書, 1991, pp. 27-30.
16) Scheffé의 探索的事後多衆比較 (Exploratory post hoc multiple comparison test: Scheffé, 1953)는 아직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탐색연구에서나, 또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으나 자료를 수집한 후에 결정된 비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李永俊, spss/pc+를 이용한 基礎資料分析, 서울: 石井, 1993., pp. 305-309.

〈표 5〉 학년별 대학생활에 대한 成敗認識의 빈도표 (df=2)

	학업 성적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1학년 (N=163)	50 (30.7%)	113 (69.3%)	22 (13.5%)	141 (86.5%)	124 (76.1%)	39 (23.9%)
2학년 (N=199)	57 (28.6%)	142 (71.4%)	31 (15.6%)	168 (84.4%)	161 (80.9%)	38 (19.1%)
3학년 (N=128)	35 (27.3%)	93 (72.7%)	10 (7.8%)	118 (92.2%)	90 (70.3%)	38 (29.7%)
x ²	0.40497		4.28166		4.89400	
유의도	0.81670		0.11756		0.08655	
전체 (N=490)	107 (28.98%)	255	53	309	285	77 (23.47%)

〈표 6〉 학년별 대학생활에 대한 成敗歸因의 빈도표 (df=6) * p < 0.05

	학업성적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능력	노력	난이성	운	능력	노력	난이성	운	능력	노력	난이성	운
1학년 (N=163)	22 (13.5%)	123 (75.5%)	8 (4.9%)	10 (6.1%)	29 (17.8%)	115 (70.6%)	14 (8.6%)	5 (3.1%)	45 (27.6%)	106 (65.0%)	2 (1.2%)	10 (6.1%)
2학년 (N=199)	10 (5.0%)	173 (86.9%)	6 (3.0%)	10 (5.0%)	39 (19.6%)	138 (69.3%)	14 (7.0%)	8 (4.0%)	47 (23.6%)	136 (68.3%)	5 (2.5%)	11 (5.5%)
3학년 (N=128)	6 (4.7%)	112 (87.5%)	2 (1.6%)	8 (6.3%)	22 (17.2%)	87 (68.0%)	13 (10.2%)	6 (4.7%)	33 (25.8%)	91 (71.1%)	4 (3.1%)	0 (0.0%)
x ²	14.98706*				1.78359				9.71904			
유의도	0.02036				0.93849				0.13699			
전체 (N=490)	32 (0.8%)	296	14 (0.3%)	20	68	253	28	13	92 (25.5%)	242	7	21 (6.4%)

3.2. 학년별 成敗歸因에 관한 실증분석

학년별로 學校生活에 대한 成敗 歸因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②”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실증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p>0.05로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②는 부정되었다. 그러나 이 분석을 통하여 보면 학업성적 및 교수와의 관계는 失敗했다고 認識한 集團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동료와의 관계는 成功했다고 認識한 集團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교수-학생 관계에 있어서는 이길래의 4인(1996)의 연구결과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반응”이 5.5%라는 응답¹⁷⁾과 金星國·辛瀚源(1997)의 “教授-學生 關係觀이 부정적인 반응”이 75.1%라는 것¹⁸⁾을 감안할 경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동료와의 관계가 成功했다고 하는 빈도는 평균 76.53%로서 선행연구인 일반대학의 64.17%보다 우세하여 宿營生活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¹⁹⁾ 이것은 숙영생활의 교육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통한 협동심의 배양에 합치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²⁰⁾

학년간에 대학생활에 대한 成敗歸因意識을 밝힌 자료는 〈표 6〉과 같다. 통계적으로 학업성적의 차

17) 이길래·배석재·정홍기·홍성근, 수·해운계 승선계열 대학생들의 의식구조 및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한국해양학회지 제20권 제2호, 1996, p. 66.
 18) 金星國·辛瀚源, 海技高等教育機關 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한국해양대학교 부설 해사산업연구소 논문집 제6집, 한국해양대학교, 1997, pp. 188-189.
 19) 선행연구의 성공이라고 인식한 평균은 학업성적에서 29.14%, 교수와의 관계에서 20.70% 및 동료와의 관계에서 64.17%로 나타났다. 李煜基, 前掲書, 1991, pp. 31-32.
 20) 한국해양대학교승선생활관규정 제2조(교육목표), 1997-1998 한국해양대학교 요람, 1997, p.261.

이는 $p < 0.05$ 로 유의하였지만, 교수와의 관계 및 동료와의 관계는 $p > 0.05$ 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歸因性向은 努力이라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업성적에서는 각 학년별로 歸因性向의 순서가 달리 나타났고 일반대학생의 연구인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의 순서로 나타났다.²¹⁾

3.3. 宿營生活態도와 학업성적의 실증분석

학생들의 宿營生活態도의 척도인 공과규정점수와 학업성적은 正的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③”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공과규정점수와 학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하여 단순상관관계분석(Simple Correlation)을 하였다.

우선 1,2학년 362명을 대상으로한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는 $r=0.3530$ ($p < 0.001$)으로 약한 상관관계²²⁾를 보이고 있는데, 즉 공과규정점수가 높으면 학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수 있다. 이를 다시 켄달(Kendall)의 상관계수 및 스피어만(Spearman)의 상관계수로 다시 살펴보면 $r=0.1855$ 및 $r=0.2640$ 으로 나타나 낮으며 $p < 0.001$ 수준에서 두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1, 2, 3학년 490명을 대상으로한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는 $r=0.2794$ ($p < 0.001$)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즉 공과규정점수가 높으면 학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수 있다. 이를 다시 켄달(Kendall)의 상관계수 및 스피어만(Spearman)의 상관계수로 다시 살펴보면 $r=0.1346$ 및 $r=0.1893$ 으로 나타나 낮으며 $p < 0.001$

수준에서 두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하였다.

결국 공과규정점수와 학점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학점이 높으면 공과규정점수도 좋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宿營生活에 관한 기존의 연구인 鄭世謨·全孝重·盧彰州·李相鏞(1984) 및 李相鏞·李永澤·卞在鉉·黃乙文·崔宗洙·李太雨·張赫杓·W. R. Rosengren (1988)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어 宿營生活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7> 공과규정점수와 학점간의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	켄 달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계수
1, 2학년 (N=362)	$r=0.3530^{***}$	$r=0.1855^{***}$	$r=0.2640^{***}$
1,2,3학년 (N=490)	$r=0.2794^{***}$	$r=0.1346^{***}$	$r=0.1893^{***}$

*** $p < 0.001$

3.4 學校風土意識과 학업성적, 宿營生活態度에 관한 실증분석

3.4.1 學校風土意識과 학업성적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學校風土意識과 학업성적과는 正的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④”의 검증은 다음 <표 8>과 같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인지도향성이 $r=0.1186$, 교수-학생관계는 $r=0.1111$ 로 미미한 공통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보면 學校風土意識과 성적과는 상관계수 $r=0.0371$ 로서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통계적으로 상관의 의의가 없었다.

선행연구와 같이 學校風土意識과 학업성적과는 전체적으로 정적상관관계는 부정되었다.²³⁾

21) 선행연구에서는 학년간의 차이는 부정되었다. 李煜基, 前掲書, 1991, pp. 31-32.

22) 일반적으로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 계수(r)의 절대값이 1.00이면 완전한 상관관계, 0.90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 0.70 - 0.80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할수 있으며, 0.50 - 0.60이면 적절한 상관관계 그리고 0.40이하이면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Boyd, Jr. Harper W., Westfall Ralph, Stasch Stanley F., *Marketing Research Text and Cases*, Seventh Edition, IRWIN, 1989.

23) 선행연구의 학교풍토의식과 성적의 상관계수는 $r=0.52$ 로 본 연구보다 높지만 통계적으로 부정되었다. 李煜基, 前掲書, 1991, p. 34.

〈표 8〉 學校風土意識과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N=490)

	실용지향성	학문지향성	인지지향성	캡퍼스사기	교수학생관계	예절지향성	사교지향성	전 체
상관계수	-0.0288	0.0628	0.1186**	-0.0123	0.1111*	-0.0329	-0.0484	0.0371
유의도	0.524	0.165	0.009	0.785	0.014	0.468	0.285	0.413

* p < 0.05 ** p < 0.01

〈표 9〉 學校風土意識과 공과규정점수의 상관관계

	실용지향성	학문지향성	인지지향성	캡퍼스사기	교수-학생관계	예절지향성	사교지향성	전 체
1, 2학년 (N=362)	-0.1106*	0.0783	0.0670	0.0095	0.1713**	0.0737	0.0581	0.0895
유의도	0.035	0.137	0.203	0.857	0.001	0.162	0.270	0.089
1학년 (N=163)	-0.1273	0.0365	-0.0544	-0.0851	0.1374	-0.0759	0.0860	-0.0159
유의도	0.105	0.643	0.490	0.280	0.080	0.336	0.275	0.840
2학년 (N=199)	-0.1216	0.1156	0.1202	0.0314	0.2022**	0.1439*	0.0292	0.1245
유의도	0.087	0.104	0.1202	0.659	0.004	0.043	0.683	0.080
3학년 (N=128)	0.0266	0.0095	-0.0247	0.0310	-0.0909	-0.1494	-0.0414	-0.0500
유의도	0.766	0.915	0.782	0.729	0.307	0.092	0.642	0.575

* p < 0.05 ** p < 0.01

3.4.2 學校風土意識과 생활태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학생의 學校風土意識과 공과규정점수는 正的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⑤”을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인 海技教育大學의 학생들은 생활태도를 평가받는 내용이 있어 이를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경우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평가 받는 주체가 다르므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1, 2학년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학년간의 생활태도의 평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를 포함하여 분석도 하였다.

결과를 보면 學校風土意識과 생활태도와의 상관계수 r=0.0895로서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상관의 의의가 없었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실용지향성에 r=-0.1106로 미미한 음의 공통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교수-학생 관계에는 r=0.1713으로 역시 미미한 공통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학년별로 볼 경우에도 1학년의 경우 상관계수 r=-0.0159로 미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하위영역에서는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고, 2학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r=0.1245으로 미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교수-학생 관계에는 r=0.2022이며, 예절지향성에서는 r=0.1439의 미미한 공통상관관계를 찾을수 있었고 3학년에서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도 상관의 의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5 成敗歸因과 학업성적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대학생활에 대한 成功認識 학생이 失敗認識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⑥”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통계적으로 보면 학업성적에 관한 集團간의 차이 및 동료와의 관계의 차이에서는 두 集團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교수와의 관계는 成功한 集團과 失敗한 集團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失敗한 集團

〈표 10〉 대학생활에 대한 成敗認識集團간 성적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학업성취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성공	142	3.3292	0.648	5.95	63	3.0054	0.825	-0.77**	375	3.0214	0.628	-2.65
실패	348	2.9563	0.622		427	3.0730	0.622		115	3.2045	0.705	
유의도	0.709				0.005				0.093			

** p < 0.01

〈표 11〉 대학생활에 대한 成敗歸因性向간 성적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학업성취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내적귀인	446	3.0543	0.653	-1.08	430	3.0752	0.639	0.89*	458	3.0577	0.662	-0.85
외적귀인	44	3.1659	0.635		60	2.9867	0.735		32	3.1591	0.471	
유의도	0.611				0.044				0.076			

* p < 0.05

〈표 12〉 대학생활에 대한 成敗歸因의 要因별 성적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학업성취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능력	38	3.2147	0.7623	3.0750*	90	3.1468	0.6384	3.8022*	125	3.0395	0.7320	0.2935
노력	408	3.0394	0.6405		340	3.0562	0.6386		333	3.0646	0.5389	
난이성	16	2.8638	0.5365		41	3.1571	0.6828		11	3.1845	0.5389	
운	28	3.3386	0.6308		19	2.6189	0.7253		21	3.1457	0.4444	
유의도	0.0274				0.0103				0.8301			

* p < 0.05

이 成功한 集團보다 학점이 높은 것은 특이하다고 하겠다. 즉 0.0676의 평점이 낮은 集團이 교수와의 관계는 成功했다고 認識하고 있었으며 일반대학생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다.²⁴⁾

成敗意識에 대한 內的歸因 학생이 外的歸因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좋을 것이라는 “가설 ⑧”을 검증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즉, 歸因性向에 있어서 교수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보면 유효한데, 內的性向을 가진 集團이 外的性向을 가진 集團보다 평점이 0.0885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²⁵⁾ 그리고 학업성취 및 동료와의 관

계의 영역에서는 內的性向 학생이 外的性向 학생보다 학점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內外的性向과의 차이는 없으며 가설은 부정되었다.

한편 각 歸因要因별로 성적을 보면 〈표 12〉와 같이 학업성취 영역에서 3.0750의 차이가 있었고,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3.8022의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에 대한 成敗認識과 內外的歸因性向은 학업성적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효과에 대한 “가설 ⑩ 학업성적에 있어 成敗認識과 內外的歸因性向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을 것이다”의 검증은 다음 〈표 13〉에서부터 〈표 19〉까지이다.

24)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생활에 대하여 학업성취와 교수와의 관계에서 성공한 집단이 학점이 높았다. 李煜基, 前揭書, 1991, pp. 34-35.

25) 선행연구에서는 교수와의 관계와 동료와의 관계에서 외적 성향학생이 내적 성향 학생보다 학점이 높았고 학업성취 영역에서는 내적 성향 학생의 학점이 높았다. 李煜基, 前揭書, 1991, p. 36.

〈표 13〉 대학 생활에 대한 成敗 歸因의 成敗集團간 빈도의 차

	학업성취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성 공 (N=142)	실 패 (N=348)	성 공 (N=63)	실 패 (N=427)	성 공 (N=375)	실 패 (N=115)
내적귀인	117 (82.4%)	329 (94.5%)	57 (90.5%)	373 (87.1%)	358 (95.5%)	100 (86.9%)
외적귀인	25 (17.6%)	19 (5.5%)	6 (9.5%)	54 (12.9%)	17 (4.5%)	15 (13.1%)
χ^2	18.20258***		0.49816		10.44200**	
유의도	0.00002		0.48031		0.00123	
능 령	18 (12.7%)	20 (0.6%)	17 (26.9%)	73 (17.1%)	89 (23.7%)	36 (31.3%)
노 령	99 (69.7%)	309 (88.8%)	40 (63.5%)	300 (70.3%)	269 (71.7%)	64 (55.7%)
난이성	4 (2.8%)	12 (0.3%)	0 (0.0%)	41 (0.9%)	1 (0.3%)	10 (12.6%)
운	21 (14.8%)	7 (10.3%)	6 (9.6%)	13 (11.7%)	16 (4.3%)	5 (0.4%)
χ^2	39.58596***		15.27774**		33.18190***	
유의도	0.00000		0.00159		0.00000	

** p < 0.01 *** p < 0.001

〈표 14〉 成敗集團(학업성취)과 歸因性向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490)

		성 공				실 패
내적귀인		3.31 (N=117)				2.29 (N=329)
외적귀인		3.41 (N=25)				2.85 (N=19)
변 량 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 효 과	성패집단	0.499	1	0.499	1.256	0.263
	귀인성향	13.530	1	13.530	34.079	0.000
상호작용효과		0.406	1	0.406	1.021	0.313
설명변량		14.434	3	4.811	12.119	0.000

먼저 대학 생활에 대한 成敗集團별 歸因性向 및 要因의 빈도는 〈표 13〉과 같다.

학업성취 및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成功 및 失敗集團에게는 內的要因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교수와의 관계에는 集團간 반응의 차이는 없었다.

要因별로 볼 경우 努力에 의한 要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고 難易性에 의한 要因은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학업성취에 대한 成敗認識과 歸因性向의 학업성

적과의 관계와 상호작용효과 분석은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成功한 集團이 內的歸因에서 3.31, 外的歸因에서 3.41로 나타났을 때 失敗集團은 內的歸因에서 2.29, 外的歸因에서 2.8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二元變量分析 결과에서 살펴보면 상호작용효과는 1.021로 없었지만 주효과는 歸因性向에 의하여 높게 설명되고 있다.

成敗集團(학업성취)과 歸因要因에 따른 성적 및

〈표 15〉 成敗集團(학업성취)과 歸因要因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490)

		성 공			실 패	
능 력		3.13 (N=18)			3.30 (N=20)	
노 력		3.35 (N=99)			2.94 (N=309)	
난이성		3.06 (N=4)			2.80 (N=12)	
운		3.47 (N=21)			2.94 (N=7)	
변 량 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 효 과	성패집단	14.028	1	14.028	35.744	0.000
	귀인요인	1.173	3	0.391	0.997	0.394
상호작용효과		3.014	3	1.005	2.560	0.054
설명변량		18.215	7	2.602	6.630	0.000

〈표 16〉 成敗集團(교수와의 관계)과 歸因性向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490)

		성 공			실 패	
내적귀인		3.13 (N=57)			3.07 (N=373)	
외적귀인		1.80 (N=6)			3.12 (N=54)	
변 량 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 효 과	성패집단	0.251	1	0.251	0.619	0.432
	귀인성향	0.434	1	0.434	1.069	0.302
상호작용효과		9.413	1	9.413	23.188	0.000
설명변량		10.098	3	3.366	8.292	0.000

상호작용효과 분석은 〈표 15〉와 같다. 학업성취에 대한 成敗認識과 歸因要因간의 성적을 보면 努力, 難易性, 運의 측면에서는 成功한 集團이 失敗한 集團보다 학점이 높았으나, 能力의 면에서 失敗한 集團이 높은 학점을 나타내었는데 일반대학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²⁶⁾ 그러나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二元變量分析 결과를 보면 상호작용효과는 2.560로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었다.

成敗集團(교수와의 관계)과 歸因性向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은 다음 〈표 16〉과 같다. 교수와의 관계에서 成敗集團과 歸因性向에 따른

성적을 살펴보면 內的歸因性向에서 成功集團이 失敗集團보다 학점이 높으나 外的歸因에서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오히려 失敗한 集團이 높았다.²⁷⁾ 또한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면 상호작용효과는 23.188으로 효과가 있어, 成敗集團과 內的歸因性向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와의 관계에서 成敗集團과 要因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은 다음 〈표 17〉과 같다.

能力 要因에서 成功한 集團은 失敗集團보다 학점이 높으나 오히려 能力, 運 要因에서는 失敗集團이 높았다. 그러나 難易性 要因은 반응한 표본이 없었다.

26) 일반대학의 학생은 능력, 노력, 난이성, 운 등 모든 측면에서 성공한 집단이 실패한 집단보다 학점이 높았다. 李煜基, 前掲書, 1991, p. 39.

27) 일반대학의 학생은 내외적 모든 측면에서 성공한 집단이 실패한 집단보다 학점이 높았다. 李煜基, 前掲書, 1991, p. 40.

〈표 17〉 成敗集團(교수와의 관계)과 歸因要因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490)

		성 공			실 패	
능 력		2.99 (N=17)			3.18 (N=73)	
노 력		3.19 (N=40)			3.04 (N=300)	
난이성		0.00 (N=0)			3.16 (N=41)	
운		1.80 (N=6)			3.00 (N=13)	
변 량 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 효 과	성패집단	0.251	1	0.251	0.621	0.431
	귀인요인	4.589	3	1.530	3.782	0.011
상호작용효과		7.204	2	3.602	8.906	0.000
설명변량		12.044	6	2.007	4.963	0.000

〈표 18〉 成敗集團(동료와의 관계)과 歸因性向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490)

		성 공			실 패	
내적귀인		3.02 (N=358)			3.21 (N=100)	
외적귀인		3.14 (N=17)			3.19 (N=15)	
변 량 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 효 과	성패집단	2.953	1	2.953	7.028	0.008
	귀인성향	0.094	1	0.094	0.224	0.636
상호작용효과		0.143	1	0.143	0.340	0.057
설명변량		3.190	3	1.063	2.531	0.057

〈표 19〉 成敗集團(동료와의 관계)과 歸因要因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490)

		성 공			실 패	
능 력		2.87 (N=89)			3.46 (N=36)	
노 력		3.07 (N=269)			3.06 (N=64)	
난이성		3.97 (N=1)			3.11 (N=10)	
운		3.08 (N=16)			3.35 (N=5)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 효 과	성패집단	2.953	1	2.953	7.227	0.007
	귀인요인	0.310	3	0.103	0.253	0.860
상호작용효과		7.197	3	2.399	5.872	0.001
설명변량		10.459	7	1.494	3.657	0.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면 상호작용효과는 8.906로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成敗集團(교수와의 관계)에서 歸因要因에 따라

성적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동료와의 관계에서 成敗集團과 歸因性向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은 〈표 18〉과 같다.

〈표 20〉 대학생활에 대한 成敗認識集團간 공과규정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학업성취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성 공	107	371.58	42.363	1.25*	53	373.01	46.018	1.01	285	369.22	49.113	2.14
실 패	255	363.76	58.356		309	364.88	55.442		77	354.41	68.968	
유의도	0.018				0.424				0.106			

** p < 0.05

〈표 21〉 대학생활에 대한 成敗歸因性向간 공과규정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학업성취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내적성향	328	366.18	55.088	0.12	321	365.79	56.353	-0.28*	324	365.26	54.929	-1.18
외적성향	34	365.00	45.210		41	368.29	32.932		28	375.71	44.006	
유의도	0.45				0.037				0.254			

* p < 0.05

內的歸因性向 및 外的歸因性向에서는 失敗한 集團이 成功한 集團보다 학점이 높았다. 이는 일반대학의 학생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²⁸⁾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위한 二元變量分析 결과에서 상호작용효과는 0.340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와의 관계에서 成敗集團과 歸因性向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은 〈표 19〉와 같다. 歸因要因에서 努力, 難易性 측면에서는 成功한 集團이 학점이 높았고, 能力 및 運에서는 失敗한 集團이 오히려 학점이 높았다.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위한 二元變量分析 결과에 대해서 상호작용효과는 5.872로 효과가 있었다. 즉, 成敗集團(동료와의 관계)과 歸因要因에 따른 성적에는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3.6 成敗歸因과 생활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본 평가에서는 공과규정점수의 평가를 위하여 1, 2학년을 대상으로 362개의 표본을 자료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활에 대한 成功認識 학생이 失敗認識 학

생보다 공과규정점수가 좋을 것이라는 “가설 ⑦”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교수와의 관계 및 동료와의 관계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는 두 集團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업성취의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成功한 集團이 失敗한 集團보다 7.82점 정도로 높은 공과규정점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설 ⑦은 부분 부정되었다.

그러나 전 영역에 걸쳐 成功한 集團이 失敗한 集團보다는 공과규정점수의 평균은 높았다.

成敗意識에 대한 內的歸因 학생이 外的歸因 학생보다 공과규정점수가 좋을 것이라는 “가설 ⑨”를 검증한 내용은 다음 〈표 21〉과 같다.

즉, 교수와의 관계와 歸因性向이 유효한데, 內的性向을 가진 集團이 外的性向을 가진 集團보다 평점이 2.5 정도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에서는 內的性向 학생이 공과규정점수가 높고, 동료와의 관계의 영역에서는 外的性向의 학생이 생활태도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은 부정되었다.

한편 각 歸因要因별로 공과규정점수를 보면 〈표 22〉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

28) 일반대학의 학생은 내외적 모든 측면에서 성공한 집단이 실패한 집단보다 학점이 높았다. 李煜基, 前掲書, 1991, p. 42.

〈표 22〉 대학생들에 대한 成敗歸因의 要因별 公과규정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학업성취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능력	32	351.25	42.0253	1.1378	68	363.23	50.6507	0.1662	92	367.82	52.2846	0.4208
노력	296	367.80	56.1376		253	366.48	57.8644		242	364.29	55.9761	
난이성	14	374.28	56.2569		28	371.07	35.4170		7	372.85	68.9720	
운	20	358.50	35.7297		13	362.30	27.12674		21	376.66	376.3996	
유의도	0.3337				0.9191				0.7382			

〈표 23〉 成敗集團(학업성취)과 歸因性向에 따른 公과규정점수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362)

		성공			실패	
내적귀인		370.22 (N=90)			364.66 (N=238)	
외적귀인		378.82 (N=17)			351.18 (N=17)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효과	성패집단	4614.045	1	4614.045	1.571	0.211
	귀인성향	274.573	1	274.573	0.094	0.760
상호작용효과		3669.610	1	3669.610	1.250	0.264
설명변량		8558.228	3	2852.743	0.971	0.406

〈표 24〉 成敗集團(학업성취)과 歸因要因에 따른 公과규정점수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362)

		성공			실패	
능력		336.67 (N=15)			364.12 (N=17)	
노력		376.93 (N=75)			364.71 (N=221)	
난이성		420.00 (N=4)			356.00 (N=10)	
운		366.15 (N=13)			344.29 (N=7)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효과	성패집단	4614.045	1	4614.045	1.599	0.27
	귀인요인	13240.859	3	4413.620	1.529	0.27
상호작용효과		20410.162	3	6803.387	2.358	0.071
설명변량		38265.066	7	5466.438	1.894	0.069

생활태도에 있어서 대학생들에 대한 成敗認識과 內外的歸因性向은 학업성적에 있어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인 “가설 ⑩ 공과규정점수에 있어 成敗認識과 內外的歸因性向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을 것이다”의 검증은 〈표 23〉에서부터 〈표 28〉까지이다.

학업성취에서 成敗集團과 歸因性向에 따른 公과규정점수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은 〈표 23〉과 같

다. 內的歸因 및 外的歸因에서 成功한 集團이 失敗한 集團보다 公과규정점수가 양호하였고,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위한 二元變量分析 결과는 成敗集團과 歸因性向의 상호작용효과는 1.250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의 成敗集團과 歸因要因에 따른 公과규정점수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은 다음 〈표 24〉와 같다. 努力, 難易性, 運의 要因에서는 成功한 集團이

〈표 25〉 成敗集團(교수와의 관계)과 歸因性向에 따른 공과규정점수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362)

		성 공			실 패	
내적귀인		377.23 (N=47)			363.83 (N=274)	
외적귀인		340.00 (N=6)			373.14 (N=35)	
변 량 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 효 과	성패집단	2991.818	1	2991.818	1.023	0.312
	귀인성향	227.029	1	227.029	0.078	0.781
상호작용효과		9839.999	1	9839.999	3.365	0.067
설명변량		13058.846	3	4352.949	1.489	0.217

〈표 26〉 成敗集團(교수와의 관계)과 歸因性向 간의 공과규정점수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362)

		성 공			실 패	
능 력		364.29 (N=14)			362.96 (N=54)	
노 력		382.73 (N=33)			364.05 (N=220)	
난이성		0.00 (N=0)			371.07 (N=28)	
운		340.00 (N=6)			381.43 (N=7)	
변 량 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 효 과	성패집단	2991.818	1	2991.818	1.019	0.314
	귀인요인	2520.74	3	840.247	0.286	0.835
상호작용효과		11540.829	2	5770.415	1.964	0.142
설명변량		17053.389	6	2842.231	0.968	0.447

失敗한 集團보다는 생활평가는 좋았으나 能力 要因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상호작용효과는 2.358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와의 관계에서 成敗集團과 歸因性向에 따른 공과규정점수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은 〈표 25〉와 같다.

內的歸因性向에서는 成功한 集團이 생활태도가 양호했으나 外的歸因에서는 반대로 失敗한 集團이 공과규정점수가 양호하였다.

이 두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수와의 관계에서 成敗集團과 歸因性向에 따른 생활태도의 상호작용효과는 3.365으로 효과가 없었다.

교수와의 관계에서 成敗集團과 歸因性向에 따른 공과규정점수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은 〈표 26〉과 같다. 能力, 努力 要因에서는 成功한 集團이 생활태도가 좋았으나 運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難易性에서는 반응하지 않아 평가가 곤란하다.

이 두 변인을 교수와의 관계에서 成敗集團과 歸因性向에 따른 공과규정점수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효과는 1.964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의 동료와의 관계에서 成敗集團과 歸因性向에 따른 공과규정점수의 상호작용효과는 다음

〈표 27〉 成敗集團(동료와의 관계)과 歸因性向에 따른 公과규정점수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362)

		성 공			실 패	
내적귀인		368.92 (N=268)			350.45 (N=66)	
외적귀인		374.12 (N=17)			378.18 (N=11)	
변 량 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 효 과	성패집단	13300.958	1	13300.958	4.584	0.033
	귀인성향	4671.171	1	4671.171	1.610	0.205
상호작용효과		3009.747	1	3009.747	1.037	0.309
설명변량		20981.876	3	6993.959	2.410	0.067

〈표 28〉 成敗集團(동료와의 관계)과 歸因要因에 따른 생활평가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362)

		성 공			실 패	
능 력		366.80 (N=75)			372.35 (N=17)	
노 력		369.74 (N=193)			342.86 (N=49)	
난이성		400.00 (N=1)			368.33 (N=6)	
운		372.50 (N=16)			390.00 (N=5)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 효 과	성패집단	13300.958	1	3300.958	4.592	0.033
	귀인요인	5570.792	3	1856.931	0.641	0.589
상호작용효과		15549.823	3	5183.274	1.789	0.149
설명변량		34421.572	7	4917.367	1.698	0.108

〈표 27〉과 같다. 상호작용효과는 1.037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內的歸因에서는 成功集團의 생활태도가 좋고 外的歸因性向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

동료와의 관계에서 成敗集團과 歸因要因에 따른 公과규정점수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은 다음 〈표 28〉과 같다.

努力, 難易性 要因에서는 成功한 集團이 失敗한 集團보다 公과규정점수가 좋았으나, 能力 및 運 要因에서는 失敗한 集團이 公과규정점수가 좋았다. 이 두 변인을 동료와의 관계에서 成敗集團과 歸因

要因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1.789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海技教育의 지향해야 할 바는 ① 국제경쟁에 全面 노출되는 就業競争에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적 能力, ② 위험하고 불편한 직업에 적응해 갈 수 있는 물리적 환경적응력, ③ 선박을 수송체계의 단위로서 관리하는 能力, ④ 장차 海運專門人으로서 성장, 발전하는 데 필요한 인간관계能力

등을 두루 함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²⁹⁾ 이런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海技教育大學은 일반대학과 구별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즉 승선생활관교육과 승선실습과정으로 대표되는 해기교육의 숙영생활은 학생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認識되어 왔다. 특히 4년간의 宿營生活을 하는 해기고등교육기관에서의 생활은 학생의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에 학업성적과 學校風土意識과 成敗歸因에 관한 영향을 검토하고 또한 學校生活의 적응 및 규정준수 등에 관한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이 어느 정도 학업과 생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미하였다. 더욱이 1995 STCW 개정협약은 해기교육의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기교육의 수월성을 꾀하는 노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海技教育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學校風土意識과 成敗歸因 및 宿營生活의 관계에 관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實證研究를 하였다. 사용한 모형은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국내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지를 토대로 적용하여 보았는데 본 연구는 海技教育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海技教育大學의 한 대학만을 기초로 하여 연구하였고 또한 宿營生活態도의 평가를 위한 척도를 공과규정점수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를 일반화 시키는데 제한은 있으나,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비교 검토를 하였다.

상기의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해 海技教育大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학생들의 學校風土意識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으로 살펴보면 1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갖고 있다. 또한 학년간의 차이를 보인 學校風土영역은 캠퍼스 사기, 사교지향성, 교수-학생 관계 및 학문지향성 등 4

개 영역이었고, 대학생들의 意識은 사교지향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절지향성, 실용지향성, 학문지향성, 캠퍼스 사기, 인지지향성, 교수-학생 관계의 순으로 意識을 가지고 있었다.

- ② 대학생활에 대한 대학생들의 成敗意識은 학업성취측면과 교수와의 관계측면에서 대부분 실패했다고 응답했지만, 海技高等教育의 특징인 宿營生活에 긍정적인 면인 동료와의 관계면에서는 76.53%가 성공했다고 반응하여 일반대학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
- ③ 宿營生活態도의 척도로 사용한 공과규정점수와 학업성적과는 미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1,2학년에서는 $r=0.3530$ 로 나타났고 전체학년에서는 $r=0.2794$ 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가설검증보다는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 ④ 대학생들의 學校風土意識과 학업성적과는 인지지향성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인지지향성 영역도 $r=0.1186$ 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 ⑤ 대학생들의 學校風土意識과 공과규정점수는 교수-학생관계와 실용지향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없었다. 실용지향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r=-0.1106$ 이며, 교수-학생관계는 $r=0.1713$ 로 미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 ⑥ 대학 생활에 대한 成功認識 학생이 失敗認識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부정되었고 오히려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실패인식 학생이 학점에 있어서는 0.0676정도로 성공인식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4가지 歸因要因에 따른 학업성적의 차이는 학업성취와 교수관계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교수와의 관계와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成敗認識과 歸因性向, 歸因要因의 학업성적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29) 李相鏞·李永澤·卞在鉉·黃乙文·崔宗洙·李太雨·張赫杓·W. R. Rosengren, 前掲書, 1988, p.120.

있었다.

- ⑦ 대학 생활에 대한 成功認識 학생이 失敗認識 학생보다 공과규정점수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는 가설은 부분 부정되었다. 또한 成敗에 대한 內外的歸要性向에 따라 공과규정점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4가지 歸因要因에 따라서도 공과규정점수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고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없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해기교육이라는 특수한 목적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반응은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숙영생활의 성과를 동료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대학의 반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宿營生活態度的 평가척도로 사용한 공과규정점수와 학업성적과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宿營生活에 잘 적응한 학생은 학점도 높다는 가설을 긍정하고 있다. 이는 宿營生活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어 宿營生活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學校風土意識은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학년일수록 낮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교지향성이 가장 높게 반응하고 있으며 교수-학생 관계가 가장 낮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넷째, 대학생들의 學校風土意識 및 成敗歸因要因은 초중등학생과 달리 그들의 학업성적과 공과규정점수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대학생이라는 연구 대상을 고려할 때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해기교육대학에서도 일반 대학과 같이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더욱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해기교육기관의 상호비교와 단과대학간의 비교 및 대학교간의 비교가 요청되는데, 연구대상을 확대할 경우 선행연구와 일치된 부분과 상반된 결과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신한원·문경만·김윤식·이영호·채양범·박호철·실동일·국승기, 해사대학생들의 효율적인 승선생활훈련 방안에 관한 연구, 韓國航海學會誌 제15권 4호, 1991.
- [2] 李相鎭·李永澤·卞在鉉·黃乙文·崔宗洙·李太雨·張赫杓·W. R. Rosengren, 海運職專門人力的 精神教育開發에 關한 研究, 韓國 海運職 學會誌 第6호, 1988.
- [3] 鄭世謨·全孝重·盧彰州·李相鎭, 韓國海技士의 教育開發에 關한 研究, 韓國航海學會誌 第8권 1호, 1984.
- [4] 康大玉, 一般, 學業 및 數學 原因歸屬과 學業成績間의 關係 分析,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5.
- [5] 金良賢, 自己統制法과 外的 統制法이 學業成績의 向上과 肯定的 自我概念의 關係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87.
- [6] 金眞嬉, 兒童의 學業成就結果에 對한 原因歸屬 및 授業方法과의 關係,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 [7] 羅炳術, 一時的으로 賦與된 成功 失敗의 經驗이 自我概念 및 特定課題 自我概念과 歸因性向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
- [8] 신은주, 학업 성·패 원인귀속유형에 따른 학업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의 정도에 관한 연구, 東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
- [9] 安貴德, 歸因性向, 知覺學級風土 및 두 變人의 相互作用이 學業成績에 미치는 影響, 中央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86.
- [10] 吳榮煥, 學習者의 歸因 行動과 學業 成就와의 關係 分析,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8.
- [11] 이길래·배석재·정홍기·홍성근, 수·해운계 승선계열 대학생들의 의식구조 및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한국항해학회지 제20권 제2호, 1996.
- [12] 李永俊, spss/pc+를 이용한 基礎資料分析, 서

을: 石井, 1993.

- [13] 李煜基, 大學生의 學校風土意識 및 大學生活에 대한 成·敗歸因과 學業成就와의 關係, 中央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1.
- [14] 鄭美淑, 學業 성패감과 내-외적 귀속에 따른 대인지각에 관한 연구, 東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15] 鄭範模, 교육과학신서 16권 : 學業成就의 要因, 서울: 教育出版社, 1977.
- [16] 千甲元, 大學生의 意識構造와 學業成績과의 關係에 對한 比較·分析, 慶星大學校 教育大學院, 1993.
- [17] 崔志雲, 大學環境과 精義의 特性, 서울: 叡智閣, 1984.
- [18] 太源植, 大學生의 學校風土意識과 情緒的 特性間의 常關 研究,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 [19] Pace, C. R. & Stern, G. G., An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49, 1958.
- [20] Rotter, J. B.,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vol. 80, 1966.